

# 유럽물류기업의 강점과 경쟁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

- 하이로지스틱스 권형준 과장 -



(사)한국물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35차 유럽 우수물류 BM연수단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 공항으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난 한 친구의 말이 문득 생각난다.

‘유럽 나가보면, 우리 나라가 얼마나 볼 게 없는지 알게 될 거다. 손발 묶어놔도 역사와 자연환경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야’ 그 말에 어렴풋이 반감을 느끼기도 전에 공항에 도착하자 다소 어수선하고 긴장스러운, 하지만 무척 들떠 있는 분위기의 연수단을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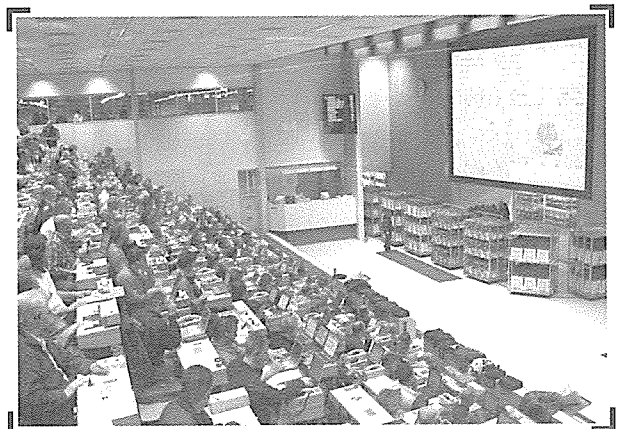
서먹서먹한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교환한 후 출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제출하자 드디어 출발한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14시간의 비행시간에 녹초가 되었을 무렵, 네덜란드 공항에 도착하자, 물류협회 피켓을 들고 있는 가이드와 함께 식사를 하고 호텔로 이동한 후, 인솔자의 간략한 방문업체 소개 및 브리핑을 듣고 다음날을 준비하였다.

## 1.알스미어 화훼 물류단지

투숙한 호텔로부터 30분 가량 이동하자 알스미어(Aalsmeer) 꽃시장 건물에 도착하였다. 입구에 써있는 ‘Around clock, around world’ 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궁금해하면서 들어서는 순간 끝없이 펼쳐지는 화훼 물류 창고의 크기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최대 꽃 시장으로 인정받는 알스미어 꽃 시장은 하루 2000만 송이의 꽃과 200만 포기의 각종 식물들이 거래된다고 소개하는 관계자의 말은 그 물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기도 힘들게 만들었다. 트롤리 하나에 대략 250송이 정도가 실린다는 보충설명을 듣고 너도 나도 ‘그럼 하루에 몇 개의 트롤리가 처리되는거지?’ 라며 나름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으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만한 계산력을 지닌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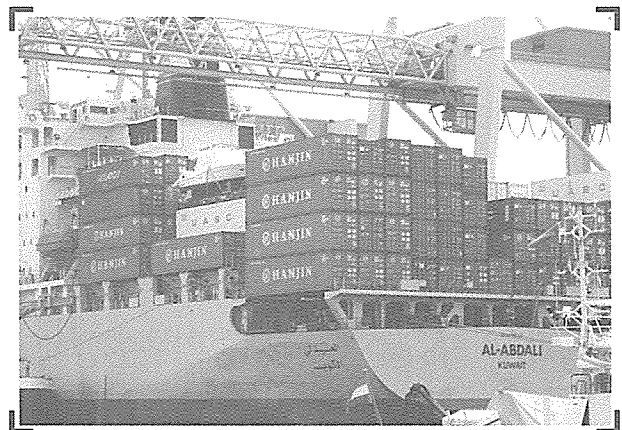
이 없는 듯 보였다. 눈치 빠른 관계자가 대략 10만 대의 트롤리가 처리되고 이중 9만여 대 이상의 트롤리 물량의 화훼가 판매되거나 임시 보관되고 나머지는 반송되거나 재처리 시설로 보내진다고 하자 그제서야 2200만이라는 단위가 이해되기 시작되었다. 전 세계 꽃 교역량의 80%가 알스미어를 포함한 네덜란드 꽃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자부심 섞인 관계자의 말에 이어 또 다른 직원은, 그 중 20프로 정도가 High Quality의 장미 품종으로서 단순히 규모나 처리 물량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가 최대의 규모로 거래된다는데 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계의 형태로 처리되는 경매시스템에는 꽃의 품종과 가격, 세부사항 및 최고 호가 등 입찰자가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이 보기 쉽게 표시됨으로써 그 규모만큼이나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매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500명의 입찰자를 수용하는 경매장이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 하나의 경매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입구에 써있는 'Around clock, around world' 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드디어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경매장 이외에도 수 십 명의 연구진들이 새로운 품종이나, 거래되는 품종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 수명 등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입찰자와 구매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이 눈에 띄었다. 그 외에 인상적인 것은 정원용 식물을 다른 창고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였는데, 이 시설물은 창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수 천대의 트롤리를 건너편에 위치한 다른 창고로 이동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 시설을 통해 기존 대비 0.45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역적인 이점과 환경을 이용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예인 화훼 물류단지의 견학은 대륙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자리잡은 한국의 물류산업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듯 했다.

## 2. 로테르담항만

세계 3위의 로테르담항만의 견학은 로테르담 항만사에서 특별히 연수단을 위해 제공한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로테르담 항만 관계자 이외에 지오디스 비테세와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의 관계자 또한 참석하여, 주최사인 한국물류협회와 연수단 참가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상에서 열린 즐거운 오찬을 다음으로 로테르담 항만의 전체 화물 처리량이 싱가포르항, 중국 상하이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으로 시작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로테르담 관계자는 로테르담 항만이 유럽 지역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화물처리에 최적화 되어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한국 등 극동아시아지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하였다.

또한 한국컨테이너풀의 원유존 상무의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의 항만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한국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관계 산업이 매우 발전한 나라이지만, 북한이라는 위협 요소가 한국인이 느끼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투자대상들에게 투자를 꺼리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대북 정책과 진행 양상, 그리고 중국의 산업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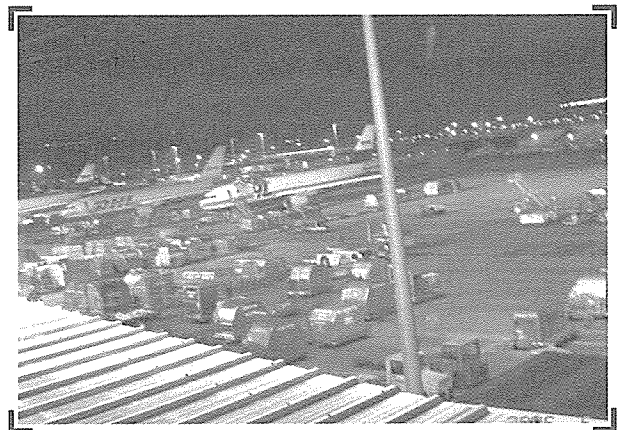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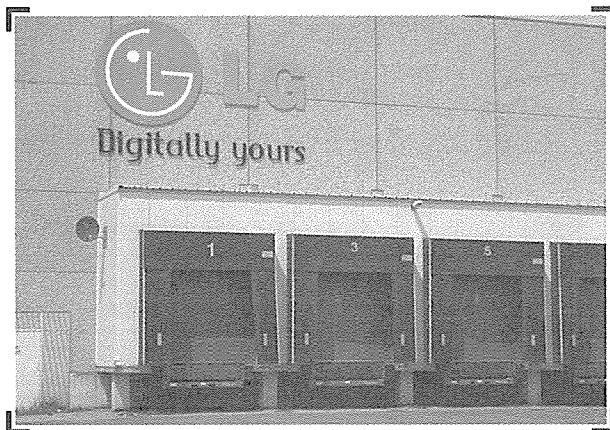
### 3.하이로지스틱스

로테르담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Ridderkerk(뒤셀도르프)에 위치한 하이로지스틱스 유럽(네덜란드) 법인은 현재 LG전자 네덜란드 물류를 전담하고 있으며 Ridderkerk와 Tilburg 2군데에 Warehouse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 Tilburg의 Warehouse를 방문하였다. 그 시설 및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른 세계적인 물류업체들의 그것(시설)과 비교해도 모자란 면이 없을 만큼의 현대화된 시설과 솔루션을 자랑했다. 하이로지스틱스 관계자(법인장)은 한국의 표준화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와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이로지스틱스가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WOS(Warehouse Optimization System)은 창고의 현황과 재고 파악은 물론 랙에 적재된 화물의 ID부터 물량의 현황, 그리고 추가로 적재할 아이템의 특성을 위해 가장 적당한 위치를 추천해주고, 모든 정보를 삼차원 그래픽으로 표현해주는 솔루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실연을 통해 보여주었다.

먼 나라 네덜란드에서 한국이 물류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과 창고의 최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고 운영의 경쟁력이 관건이라는 하이로지스틱스 관계자(법인장)의 말은 앞으로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정보화 강국인 한국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자신감과 포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물류산업의 본고장인 네덜란드에서 당당하게 한국물류의 진출가능성과 유수의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4. DHL 벨기에 터미널

새벽 한 시, '원래는 오후였는데, 새벽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훨씬 더 불만하다더라구요. 물류는 원래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능청을 떠는 협회 직원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또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덜거릴 수는 없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바쁘게 돌아가는 DHL터미널은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많은 볼 거리를 제공했다. 터미널 안을 가득 채운 내연성 컨테이너와 서류 물량을 처리하는 서류 화물 전용 처리시설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처리과정 중 오류로 배출되는 서류 화물을 갈고리 같은 것(DHL관계자는 이것을 Specially Designed Tool - 특별히 고안된 도구라고 강조함)으로 끌어 내는 장면은 좀 의아하기도 했으나 엄청난 양의 화물이 비교적 단시간안에 처리되어 익일배송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은 왜 DHL이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는 물류업체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 5. 지오디스 비테쎬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오디스 비테쎬의 벨기에 물류창고는 대부분 LG전자의 물량만을 다루고 있는 터라, 그 규모면에서는 다른 방문지에 비해 초라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작은 시설이 아프리카(유럽 대부분의) 지역으로 나가는 수많은 LG전자의 물량을 처리한다는 점이 자신들의 효율성을 증명한다는 관계자의 말 속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지오디스의 다양한 사업분야를 소개하면서, 화물의 생산 시점부터 소비자가 손에 받아들게 되는 그 시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서비스한다는 이른바, 원스탑 서비스가 지오디스 비테쎬의 오늘 날의 모습을 이루어지게 한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오디스 비테쎬의 또 다른 이름은 "SCM의 모든 프로세스의 전문가 집단"으로 밑 줄에 쓸 수 있을 거라는 유머섞인 자랑과 함께 제 35차 유럽 우수물류 BM연수의 공식과정이 종료되었다.

외국의 우수 물류 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항상 긴장되고 설레이는 경험이다. 낯선 이국땅에 발을 딛는다는 설레임보다, 마치 내 자신이 산업스파이가 되어 그들이 가진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우수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강점과 경쟁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에서 오는 긴장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한다.

유럽의 우수물류업체와 기관들이 지닌 자연적, 행정적인 이점은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늘날 그들이 이루어낸 발전을 거울삼아 물류 현장에서 종사하는, '대한민국 물류인'인 우리에게 물류 혁신과 발전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모범답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사)한국물류협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연수 참가기를 마친다. **물류**

